등장 인물

1. 주연
2. 주인공 (여)

이름 : 미정

성격 : 소심하며 마음이 여리다. 어린 시절을 친한 친구 없이 자랐기에 대화능력도 낮고 부끄럼을 많이 탄다. 은근 잠이 많은 타입. 약간의 덜렁거림과 평소의 소심한 면의 갭 매력 포인트(중-요).

나이 : 대략 중2~고2 ? (중요한 사항은 아닌 듯)

성장 배경 :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자라왔다. 외동이며 그 특유의 능력 때문에 주변과 격리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이외의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던 중 모종의 사건으로 납치되어 실험실로 끌려왔다.

특기 : 독서, 하루종일 침대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 : (아버지가 생일때 주셨다는 설정) 곰 인형, 조력자(남)이 될수도…, 단 거.

말투 : 별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더듬는다. 조력자의 활발한 성격 덕분에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평범하게 말함.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쓰나 당황하거나 기쁘면 반말을 한다.

능력 : 오로라 (정화 된다아아아아아아ㅏㅏ~~~!)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화 된다는 설정 (정화라는 것은 현재 정화로 진행할 것인가 정신지배 (10코) 로 진행할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외형 : 흑발 긴-머리(조금 많이 길어야 할 듯) 실험실에서 돌아다니는 하얀색 실험복 같은 걸 두루고 있음. (미소녀라면 정말 좋겠어요 하하ㅏ하…) 개인적으로 오로라 안에 들어가면 바보털이 그 쪽으로 쫑긋 거린다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조력자 (남)

이름 :역시 미정

성격 : 성실하며 착하다. 호기심이 많으며 덕분에 사고를 치기도 한다. 어리기 때문에 순수하고 옳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롭다. (완-전-체)

나이 : 초 5 ~ 중1 ?

성장 배경 : 4인가족 (아버지, 어머니 , 본인, 여동생) 빈민촌의 공장의 핵심 기술자인 아버지 어깨뒤로 로봇에 대해 많은 지식을 배웠으며, 본인 또한 이를 좋아해 아버지를 이어 기술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나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아버지가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대신 공장에서 일하겠다며 주장, 가족들과 다른 공장 노동자들도 말렸지만 감독관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아버지 대신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탈출한 주인공과 만나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특기 : 로봇 제작, 본인이 만든 공중 부양 스케이트 보드 타기, 마을에 사는 다른 아이들과 놀기 등.

좋아하는 것 : 가족, 로봇, 주인공(이것도 될수도 안될수도…)

말투 : 기본적으로 쾌활한 꼬마애의 말투.

능력 : 주인공을 도우며 오오라로 처치 할 수 없는 로봇들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준다. (직접적으로 조종하진 않지만, 트랩 제조나 특수 조건 완료를 했을 때 로봇들이 사라진다는 설정을 위해 만든 캐릭터. 후에 주인공의 성격에도 영향을 준다.)

외형 : 키가 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장난스러운 웃음을 띠고 있다. 공장 헬멧을 개조한 헬멧과 고글을 쓰고 다니며, 팔엔 직접 제작한 도구(공구라던가)와 허리춤엔 조그만한 가방을 가지고 있다. 주로 아버지가 만든 법을 알려주신 스케이트 보드와 전자석 신발을 신고 있다.

1. 조연

시나리오

프롤로그

어린 시절, 자신의 생각을 읽는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괴물 취급받는 주인공을 주인공의 아버지가 구해주는 장면을 꿈 처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주인공이 생각과 기억을 읽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hapter 1

프롤로그의 내용의 꿈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집이 아닌 실험실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아버지와의 약속을 깨고 주변 연구원의 마음을 읽기로 한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그 연구원의 트라우마가 읽히게 되고, 그 연구원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지게 된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연구원들은 비상 벨을 누르고 주인공을 제압하려하나 주인공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능력을 써 모두 제압한다. (그 뒤 게임이 진행됨. 게임 안에 일어나는 이벤트는 맵을 구상하면서 같이 생각할 예정)

보스를 잡고 주인공은 이 실험실에서 탈출하는 것에 성공한다. 경비원들이 다시 그녀를 잡아들일게 무서웠던 주인공은 어디론가 도망치기 시작한다.

chapter 2

도망치던 주인공은 빈민가의 한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다. 막상 도망쳐 오긴 했지만 사람이 북적거리는 이 마을은 그녀에겐 부담스러운 곳이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진 주인공은 울음이 터지게 되는 데, 그러다 앞을 미처 보지 못한 주인공은 한 징그럽게 생긴 영감과 부딪치게 되었고, 그가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그 아저씨와 시비가 붙어 곤란해 하던 주인공을 조력자가 구해주고, 그녀의 사정을 듣게 된 조력자가 주인공을 보살피기로 결정한다.

한편, 실험실에서 도망친 그녀를 찾기 위해 실험실 근처의 마을들을 찾기 시작한다. 조력자와 주인공이 있던 마을을 관리하는 관리에게도 그녀를 찾으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평소에 다른 마을보다 상대적으로 그의 권력이 낮았던 그는 이를 빌미로 마을 주민들을 착취하기 시작한다.

(주인공과 조력자는 도망치던 중 마을사람들이 감독관에게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오오라를 이용해 감독관들을 무찌르고 마을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 오히려 괴물 취급을 받으며 마을사람들에게 “너희 때문이야!”라며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된다.

이에 주인공은 상처 받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에 도망가고, 조력자는 그녀를 잡으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우연하게 이 마을의 관리가 오늘 그녀를 잡기 위한 병력이 왔다는 것을 들은 조력자는 떠나간 그녀를 돕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찾아간다. 그녀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로봇들에 고전하는 그녀를 도와주고 떠나가려는 그녀를 자신이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한다. 그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다 협력하는 모습에 감동 받은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관리를 몰아내는 것에 성공한다.

(보스를 처치한 후 스토리를 진행할때 조력자가 마을사람들에게 마음 어린 설득을 하는 장면을 회상 형식으로 알려준다.)

chapter 3

반란에 성공한 마을 사람은 관리가 가지고 있던 군수 물자와 자금으로 다른 마을과 함께 중심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다. 한편 관리에게 온 편지를 통해 이 나라의 대통령(국왕)이 직접 그녀를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알고 주인공은 조력자와 반란군과 함께 나라의 중심부로 향한다. 다른 빈민촌을 관리로부터 해방 시키는 것은 쉬웠지만, 굳건하게 지켜져 있는 경계를 뚫어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전하고 있었다. 한편, 시간이 지날 수록 상대적으로 생산 라인이 적은 반란군은 군수물자와 생필품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고, 이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자 이를 알아챈 지도층은 반란군들과 몰래 만나 주인공을 넘겨준다면 앞으로 생활에 일제 참견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주인공과 조력자는 아무 것도 모른채,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제안에 사람들은 그녀를 배신하고 지도층과 평화 협정을 맺게 되었다.

주인공은 도시의 핵심 인물인 변이된 부자랑 싸워 겨우 이기지만, 그 때 배신한 반란군이 쳐들어와 주인공을 지도층에게 넘기기 위해 협박한다.)

주인공은 자신이 희생하면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조력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 지도층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chapter 4

주인공은 드디어 지도층과 직접 만나게 된다. 심한 일을 당할 거라는 주인공의 예상과 다르게, 지도층은 오히려 주인공을 끌고 온 부하를 꾸짖으며 거칠게 데려와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주인공의 능력에 대해 궁금해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덧붙여 실험은 무조건 인도적으로 진행되며, 주인공의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일주일 동안의 실험이 끝나면 거액의 실험비와 함께 집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한다. 주인공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선택권이 없는 탓에 지도층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실제로 첫 3일동안은 친절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 실험(그냥 설문조사, 연구원 마음 읽고 답하기 이 정도 느낌), 호화로운 식사, 안락한 침대와 같이 주인공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주인공도 마음이 조금 풀어지려 한다.

하지만 4일째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인공은 자기가 자던 침대와 주변 공간이 달라진 것을 알아챈다. 주인공이 주변 공간을 살펴보니 매우 거대한 원기둥 모양의 공간 안에 있었고, 두꺼운 철제 벽과 문들로 격리되어 있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스피커에서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오늘의 실험은 여기서 하고, 저기 보이는 실험체의 마음을 읽으면 된다’라는 소리가 들린다. 실험체가 너무 멀리 있어 주인공이 다가 가는데, 실험체가 주인공이 있는 것을 알아채자 주인공한테 달려든다. 주인공은 두려움을 느끼며 실험체를 제압하기 위해 능력을 사용해 실험체의 마음을 읽는데, 마음이 매우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화감을 느낀다. 하여튼 주인공은 실험체를 제압하고, 이런 방식으로 실험이 계속 진행된다.

모든 실험실을 지나 마지막으로 도달한 곳은 이전과는 다른 조그마한 방이었다. 주인공이 방에 들어가자 모든 문이 잠기며, 스피커로 주인공의 실험 목적이 마음을 읽는 능력을 연구하여 명령에 굴복하는 것을 트라우마로 만들어 조종하는 장치의 개발이라는 것과, 뇌를 열어 정밀한 분석을 한다면 기기의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마지막 실험으로 주인공을 죽이겠다는 음성이 들리며 독가스가 나온다. 주인공이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려 할 때, 쾅하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조력자가 등장! 조력자 曰 : 끌려갈 때 추적기 달아놓고 혼자 잡임함, 보스가 이 실험실에 있음, 내가 너를 위해 능력강화머신 개발한 거 드림, 싸우러 ㄱㄱ

빠밤 탁! 해피엔딩!